

# 1880년 제2차 修信使의 鄉書記 朴祥植의 사행일기 『東渡日史』\*

*Dong-do-il-sa*, an Envoy Journal Written by Park Sang-Sik,  
a Village Clerk of the Second Susinsa in 1880

김 동 철 (Kim, Dong-Chul)\*\*

## ◁ 목 차 ▷

- |                          |                    |
|--------------------------|--------------------|
| 1. 서론                    | 4. 「동도일사」의 문헌학적 검토 |
| 2. 제2차 수신사 파견과 사행단의 구성   | 5. 결론              |
| 3. 「동도일사」의 저자 박상식과 그의 직계 | <참고문헌>             |

## < 초 록 >

1880년 제2차 수신사에 향서기로 수행한 동래 출신 박상식은 『동도일사』라는 使行日記를 남겼다. 이 책은 그의 후손이 소장해 오다가, 현재는 부산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논문은 『동도일사』를 저자, 체제, 내용, 사료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부산은 조선시대 한일교류사의 중심지였다. 17세기 이후 12차례의 통신사와 4차례의 수신사가 일본에 갔다. 부산 지역 사람은 이 두 사행에 많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사행일기를 남긴 사람은 1763년 통신사의 卜琢과 1880년 수신사의 박상식뿐이다.

사행일기는 대부분 중앙 관료들이 남겼다. 부산 등 지방[로컬] 사람들이 남긴 것은 극히 드물다. 그는 동래 지역의 대표적인 향리 집안 출신이다. 그는 상급 향리직을 역임한 경력 때문에 향서기로 선발되었다고 본다.

『동도일사』는 1책으로 된 필사본으로 유일본이다. 책은 몇 장이 찢어져서 완본은 아니다.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그의 사행일기, 제2부는 正使 金弘集이 일본 外務省 관료와問答한 내용, 제3부는 수신사 관련 公文이다.

일기에는 그 만난 일본인과 淸國人, 방문한 장소, 구경한 도시 경관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군사시설, 紙幣 제작, 철도·기선 등 근대 교통시설 등 近代 文物에 대한 그의 인식을 잘 볼 수 있다.

이 책은 수신사 연구의 1급 텍스트로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중앙 官僚의 시선이 아닌, 지방 향리 출신이 본 일본의 근대 문물과 景觀에 대한 視線과 認識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의 아버지 朴周演은 『倫臺集』이란 文集을 남겼다. 父子 2대에 걸쳐 著作物을 남긴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산 지역의 로컬지식 형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要語: 수신사, 김홍집, 박상식, 『동도일사』, 사행일기, 로컬지식, 향리, 부산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H00006).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history@pusan.ac.kr)

접수일: 2012년 5월 30일 최초심사일: 2012년 6월 13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6일

<ABSTRACT>

Park Sang-Sik(朴祥植), who was from Dongnae(東萊) and accompanied the second Susinsa in 1880 as a village clerk, left an envoy journal named “*Dong-do-il-sa*(東渡日史).” This book had been owned by his descendant, and currently has been in the possession of the Busan Museum. This study analyzed the “*Dong-do-il-sa*” based on the author, sojourn, value as historical record and others.

Busan was the center of the exchange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in Jeseon Period. Since the seventeenth century, twelve times of Tongsinsa(通信使) and four times of Joseon Susinsa were dispatched to Japan. Many people in Busan area participated in these two envoys. However, Byeon Tak(卞琢) as a member of Tongsinsa in 1763 and Park Sang-Sik as a member of Susinsa in 1880 were the only people who left envoy journals.

Most of envoy journals were left by government bureaucrats. It is quite rare for people from provincial cities such as Busan to leave an envoy journal. He was born to a representative village official family in Dongnae area. It is considered he was selected as a village clerk because of his career that he served in a variety of high-ranking village officials.

“*Dong-do-il-sa*” is the unique manuscript consisting of one book. The book is incomplete with several pages torn. The book consists of three parts. It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his envoy journal, the second part is questions and answers between Kim Hong-Jip(金弘集), the Joseon chief envoy, and bureaucrats of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third part is the official document related to Susinsa.

In his journal, he recorded details of Japanese and Manchu people he met, places he visited, and urban landscape he viewed.

In particular, it shows his perceptions of modern transport facilities and culture such as military installations, paper currency production, rail transport and steamboat.

This book has a great historical value as a first-rate text in the study of Susinsa. It is an invaluable document that shows views and perceptions of the modern culture and landscape of Japan from the perspectives of not government bureaucrat but local official. His father, Park Ju-Yeon 박주연(朴周演), left a collection named “*Yun-dae-jip*(倫臺集).” It is greatly significant for father and son to left works for two generations in building local knowledge in Busan area.

Key words: Susinsa(修信使), Kim Hong-Jip(金弘集), Park Sang-Sik(朴祥植),  
*Dong-do-il-sa*(東渡日史), envoy journal, local knowledge,  
village official, Busan

## 1. 서론

부산[동래]은 조선시대 한일교류사의 가장 중요한 창구였다. 조선시대 한일교류사는 왜관과 통신사의 두 축으로 전개되었다. 17세기 이후 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 파견되었다. 통신사로 파견된 인원은 400~500명 정도이고, 왕복 6~12개월 정도였다.

통신사가 개항 전에 파견된 사행이라면, 수신사는 개항 후 파견된 사행이다. 수신사는 1876년, 1880년, 1881년, 1882년 4차례 파견되었다. 수신사는 50~70명 정도이고, 왕복 2~4개월 정도였다.<sup>1)</sup>

통신사 때 부산 사람은 100명 정도 파견되었다.<sup>2)</sup> 통신사와 수신사에 참가한 많은 부산 사람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사행일기[사행록]는 1763년 통신사(정사 趙曦)의 卜船將 卜琢의 『癸未隨槎錄』과 1880년 수신사(정사 金弘集)의 鄉書記 朴祥植의 『東渡日史』 두 책뿐이다. 『계미수사록』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송계古3653-40)이고 저자 미상이다. 이 책 자체에는 작가를 확실히 밝힌 부분이 없지만, 내용 분석을 통해 변탁의 작품으로 밝혀졌다.<sup>3)</sup> 이에 비해 『동도일사』는 김석희의 해제에 따르면 박상식의 후손 소장본으로 박상식이 쓴 것이 틀림없다.<sup>4)</sup> 『계미수사록』의 특징은 造船錄과 四言詩인 癸未隨槎總錄 부분이며,<sup>5)</sup> 일기체의 사행록은 아니다. 이에 비해 『동도일사』는 사행의 거의 전 기간이 일기체로 쓰여진 대표적인 사행록이다.

부산[동래]지역에서 문집이나 일기 등을 남긴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海叟集』(金禹鼎), 『秋湖遺稿』(朴苾彩), 『耕巖私稿』(文聲駿), 『晦園集』(梁在日), 『芝田集』(李光昱), 『都總』과 『上京日記』(朴琪淙), 『倫臺集』(朴周演), 『東渡日史』

1) 하우봉, “개항기 수신사행에 관한 일연구,” 『한일관계사연구』 10(1999), 한일관계사학회.

2) 김동철, “통신사행과 부산지역의 역할,”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7, 조규익, 정영문 엮음, (학고방, 2008), 153-156.

3) 구지현, “『癸未隨槎錄』에 대한 재검토,” 『동방학지』 131(2005), 연세대 국학연구원.

4) 김석희, “『東渡日史』 해제,” 『부대사학』 6집(1982), 부산대학교 사학회.

5) 구지현, 256.

(朴祥植) 등이 대표적이다.<sup>6)</sup> 이 가운데 박주연과 박상식은 부자 관계이고, 이 밀양 박씨 집안은 동래지역의 상급 향리와 武任을 역임한 대표적인 중인 집안이다. 이 밀양 박씨 집안의 고문서를 통해 가계, 通婚, 경력 등을 중심으로 이 집안의 실체가 연구된 바 있다.<sup>7)</sup> 그리고 윤대집을 통한 박주연의 문학세계와<sup>8)</sup> 박주연이 畫題를 쓴 그림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9)</sup>

『동도일사』가 학계에 소개된 지 20년이나 되고, 그 동안 박주연-박상식 집안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도일사』는 한일관계사나 부산지역사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박상식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던 『동도일사』는 최근 부산박물관이 소장하게 되었다. 부산박물관은 이 책의 자료적 가치를 인정하여 <부산박물관 역사자료총서 1>로 영인, 국역 간행하였다.<sup>10)</sup>

1880년 제2차 수신사 정사인 김홍집은 사행 중의 견문을 기록한 『修信使日記』를 남겼다. 여기에는 『修信使金弘集復命書』, 『修信使金弘集入侍筵說』, 『答書契贍本』, 『朝鮮策略』, 『大清欽使筆談』, 『諸大臣獻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가 1958년 간행한 『修信使記錄』에 수록되어 있다. 이 김홍집의 『수신사일기』가 제2차 수신사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로 활용되고 있다. 『동도일사』는 아직 수신사 연구의 자료로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서지학적 검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도일사』를 기본 텍스트로 하여, 제2차 수신사 사행단의 구성, 일정과 노정, 『동도일사』의 저자 가계, 체재와 내용, 자료적 가치 등 『동도일사』에 대한 문헌학적 검토를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한다.

- 
- 6) 정경주, “부산의 고전문학,” 『항도부산』 13호(1996), 부산시사편찬위원회.
  - 7) 김동철, “조선후기 동래부 吏族 밀양 박씨 집안과 그 고문서,” 『고문서연구』 22(2003), 한국고문서학회.
  - 8) 엄경흠, “五倫臺와 竹林 朴周演의 문학,” 『동양한문학연구』 15집(2001), 동양한문학연구회.
  - 9) 이현주, “동래지역 <농가월령 12곡병> 2점을 통한 조선말기 경직도의 일 경향 연구,” 『문물연구』 16호(2009), 동아시아문물연구학회.
  - 10) 박상식, 이성주 역, 『동도일사』(2012), 부산박물관. 필자는 이 국역본의 해제를 쓴 바 있다. 본고는 이 해제를 논문 형태로 재구성하고,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2. 제2차 수신사 파견과 사행단의 구성

### 2.1 1876년 제1차 수신사 파견

1876년(고종 13) 2월 일본과 체결한 조일수호조규(일명 강화도조약)는 조선이 제국주의적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다.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후인 1876년 2월 22일 김기수를 수신사로 임명하였다. 김기수를 정사로 하는 제1차 수신사는 1876년 4월 서울을 출발하였다. 이 수신사행은 최초의 근대적 외교 사절단이었다.

1811년 마지막 통신사 이후 65년 만에 공식 사절단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1763년 통신사가 1764년 일본 본토를 다녀온 이래, 사절단이 112년 만에 도쿄(에도)에 간 것이다. 1868년 명치유신을 통해 일본은 근대적인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수신사는 종전의 통신사와는 성격이 달랐다.

김기수는 “수신(修信)이란 옛 우호를 닦고 신의를 두텁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옛 우호는 개항 이전의 전통적인 교린체제를 의미한다. 조선은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전통적인 교린체제의 회복 또는 연장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일 관계가 교린체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 대신 수신사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수신사행에 대한 조선의 인식은 혼합적이고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새로운 외교체제의 성립을 강조하면서, 수신사행의 절차나 구성을 통신사행과는 다르게 요구하였다.<sup>11)</sup>

제1차 수신사는 수교 교섭 때 일본이 사절을 파견한 것에 대한 회사(回謝, 답례)와 수신이라는 명분적인 임무와 함께, 명치유신 이후 변화된 일본의 정세 시찰과 개화문물의 탐색이라는 실질적인 임무를 띠고 있었다.<sup>12)</sup>

제1차 수신사 김기수의 건문활동과 보고에 대해서는, 위정자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개화 또는 대외 정책을 실시하는 데 중요

11) 하우봉, 141-142.

12) 최덕수, “강화도조약과 개항,” 『한국사 37』(2000), 국사편찬위원회, 256-257.

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로 나뉜다. 당시에는 아직 개화정책을 추진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제1차 수신사 이후 개화정책의 추진에 큰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김기수의 건문은 위정자에게 일본의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제1차 수신사에 참가한 수행원들은 개화 자강과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sup>13)</sup>

## 2.2 1880년 제2차 수신사 파견

조선이 근대 서양문물을 수용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점은 1879년이다. 1879년 3월 일본은 유구(琉球)왕국을 폐지하고 오키나와(沖繩)현 설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청과 러시아 사이에 이리(伊犁, 중국 신장성 천산산맥 중부의 분지)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 청의 실력자 이홍장(李鴻章)은 조선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로대신 이유원(李裕元)에게 서신을 보내어,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할지 모르니, 서구열강과 조약을 맺고 군사력을 강화하라고 당부하였다.<sup>14)</sup>

1880년 2월 의정부에서는 수신사 파견을 결정하였다. 일본공사(公使)가 연례적인 일을 전담하기 위해 조선에 왔으므로, 교린의 의리로 보아 사례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1880년 3월 김홍집(金弘集)을 수신사로 임명하였다. 제2차 수신사행의 사명은 변리공사(辨理公使) 화방의질(花房義質) 등 일본사절의 내한(來韓)에 대한 답례와 수신, 일본물정의 탐색이라는 점에서는 제1차 수신사행과 마찬가지로였으나, 양국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되었다는 점에서 달랐다.<sup>15)</sup>

사행이 파견되기 전에 화방의질은 인천 개항을 요구하였고, 미곡금수의 해제와 관세배상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가하였다. 조선조정은 이들 현안을 절충하기 위해

13) 한철호, “수신사 김기수가 바라본 근대 일본,” 『조선이 본 일본』, 국사편찬위원회 편, (두산동아, 2009), 213-215.

14) 허동현, “조사 시찰단이 일본에서 맞본 근대,” 『조선이 본 일본』, 국사편찬위원회 편, (두산동아, 2009), 223.

15) 하우봉, 154.

수신사를 파견한 것이다. 김홍집이 해결해야 할 현안은 첫째, 인천 개항과 일본 공사의 주경(駐京) 요구를 철회시키도록 절충할 것, 둘째, 부산항에서 관세를 징수하도록 교섭할 것, 셋째, 미곡수출 금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절충할 것 등이다. 아울러 이홍장이 권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 가능성을 타진하고, 국제정세를 탐문하며, 일본의 문물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었다.<sup>16)</sup>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은 일본에서 외교현안의 절충이라는 막중한 사명 이외에, 일본측의 권유로 개화문물을 시찰하고, 일본 정계 요인들을 만났다. 그리고 청국 공사관을 방문하여 공사 하여장(何如璋), 참찬관 황준헌(黃遵憲) 등과 국제정세를 논하였다. 이들과 6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김홍집은 국제정세에 눈을 뜨고, 문호개방과 부국강병책의 절박함을 확실하게 깨달았다.<sup>17)</sup> 특히 황준헌은 이 논의 내용에 자신의 지론을 담은 「조선책략(朝鮮策略)」을 지어 김홍집이 귀국할 때, 청의 정관응(鄭觀應)이 지은 「이언(易言)」과 함께 전해주었다.<sup>18)</sup>

김홍집은 사행 중의 견문을 기록한 「수신사일기」를 남겼다. 여기에는 「수신사 김홍집복명서(復命書)」, 「수신사김홍집입시연설(入侍筵說)」, 「답서계(答書契) 등본」, 「조선책략」, 「대청흡사(大清欽使)필담」, 「제대신헌의(諸大臣獻議)」, 「아라사채탐사(俄羅斯探探使) 백춘배(白春培)서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수신사기록」(국사편찬위원회, 1958)에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자료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문견별단(聞見別單)의 성격을 띤 복명서이다. 이것은 사행의 노정과 일정, 현안 협상에 관한 보고, 러시아의 군사와 남진 의도, 일본의 해외정보 수집 노력, 흥아회, 일본의 지리, 인물, 풍습, 명치유신 이후의 성과, 군사제도, 교육제도, 경제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논한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조선책략」과 함께 조선이 안으로는 자강정책, 밖으로는 개국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19)</sup>

16) 송병기, 「근대한국관계사연구」(단국대학교 출판부, 1985), 51-55; 하우봉, 155.

17) 이현주, “제2차 수신사의 활동과 「조선책략」의 도입,” 「한국사학보」 25호(2006), 고려사학회, 293-297; 하우봉, 156.

18) 하우봉, 156.

19) 하우봉, 156-157.

조선은 왕조의 존립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1880년 12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였다. 통리기무아문은 청에 군기제조와 군사조련에 관한 지식습득을 위한 유학생을 파견하고, 일본에 여러 제도 등의 시찰 조사를 위한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881년 4월 일본에 조사(朝士)시찰단, 9월 청에 영선사(領選使)를 파견하였다. 9월에 일본식 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의 창설하였다. 1882~83년에 미국, 영국, 독일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병자수호조규에 이은 제2의 문호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1881년에는 제3차 수신사(정사 趙秉鎬), 1882년에서 제4차 수신사(정사 朴泳孝)가 파견되었다. 1880년대에 개화자강운동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4차례에 걸친 수신사의 일본 견문 보고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sup>21)</sup>

### 2.3 제2차 수신사 사행단의 구성

『고종실록』, 『승정원일기』의 고종 17년(1880) 3월 23일조에, “김홍집(金弘集)을 수신사에 임명하여 일본국으로 갈 것을 명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에 김홍집을 정사로 하는 제2차 수신사 사행원이 구성되었다. 사행원의 명단은 『동도일사』, 『修信使行膳錄』[표제어 修信使行書契膳錄,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8107-1]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부산부사원고(釜山府史原稿)』에도 『수신사행등록』에 근거하여 수신사 일행의 관직과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삼자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동도일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수신사행등록』과 『부산부사원고』를 비교하여 사행원 명단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0) 하우봉, 159.

21) 하우봉, 140.

1880년 제2차 修信使의 鄉書記 朴祥植의 사행일기 「東渡日史」

<표 1> 1880년 제2차 수신사 사행원 명단

직책	전현직 경력/신분	성명	인원	수신사행 등록	부산부사 원고
수신사(修信使)	통정대부 예조참의	김홍집(金弘集)	1		金宏集
당상관(堂上官)	절충장군	이종무(李宗懋)	1		
상관사(上判事)	전 봉사(前奉事)	김윤선(金允善)	2		
	전 훈도(前訓導)	변중기(卞鍾夔)			
별견(別遣) 한학(漢學)당상	승록대부	이용숙(李容肅)	1		
군관(軍官)	전 중군(前中軍)	윤웅렬(尹雄烈)	2		
	전 낭청(前郎廳)	최원영(崔元榮)			
서기(書記)	사헌부 감찰(監察)	이조연(李祖淵)	2		없음
	전 낭청(前郎廳)	강위(姜瑋)			
반당(伴尙)	전 낭청(前郎廳)	지석영(池錫永)	2		
	전 낭청(前郎廳)	김순철(金順哲)			
별군관(別軍官)	전 현감(前縣監)	김기두(金箕斗)	3		
	출신(出身)	상직현(尙稷鉉)			
	한량(閑良)	임태경(林泰慶)			
향서기(鄉書記)		오인섭(吳麟燮)	2		吳麟燮
		박상식(朴祥植)			
통사(通事)		박기중(朴琪淙)	3		
		박인순(朴仁淳)		朴仁順	朴仁順
		하기운(河奇允)		河奇元	河奇元
행중(行中) 고직(庫直)		장한석(張漢錫)	1		
사(使) 노자(奴子)		익환(翌煥)	2		
		수영(壽榮)		없음	없음
절월수(節鉞手)		진업이(陳業伊)	2		
		신쾌진(申快辰)			
일산군(日傘軍)		한진이(韓辰伊)	1		
사령(使令)		안금생(安今生)	2		
		최정학(崔貞學)		崔貞鶴	崔貞鶴
나팔수(喇叭手)		강학이(姜鶴伊)	2		
		윤시돌(尹時突)			없음
도척(刀尺)	노(奴)	학용(學用)	2		
	노(奴)	만식(萬植)			
주방(廚房)사환(使喚)		김기홍(金基洪)	6	주방고직	주방고직
		전석희(田錫喜)		주방사환	사환

직책	전현직 경력/신분	성명	인원	수신사행 등록	부산부사 원고
		김순길(金順吉)			
		허용이(許用伊)		許龍伊	許龍伊
		최성구(崔聖九)			
		최만춘(崔萬春)			崔萬奉
공장(工匠)			3	3	3
행중(行中)노자(奴子)			13	14	14
교군(驍軍)			6	6	6
전체 인원 합계			59명	59명	60명

출전: 박상식, 『동도일사』; 『수신사행등록』과 『부산부사원고』는 다른 부분만 표기하였다.

『동도일사』, 『수신사행등록』, 『부산부사원고』를 비교해 보면, 『수신사행등록』과 『부산부사원고』에는 인명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 그리고 동일인의 한자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하기윤/하기원, 최만춘/최만봉처럼 인명이 다른 경우도 있다. 하기윤을 하기현(河奇鉉)으로 기록한 연구도 있다.<sup>22)</sup>

『동도일사』에서는 주방사환 6명이 인명이 기록되어 있으나, 『수신사행등록』은 주방고직과 주방사환으로, 『부산부사원고』에서는 주방고직과 사환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체 인원도 59/59/60명으로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2차 수신사행의 총인원을 58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3)</sup> 『수신사행등록』과 『동도일사』가 59명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59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동도일사』(1880년) 7월 3일 일기에는, “신문지를 얻어 보았더니 머리 제목이 대판(大坂)일보라고 했고, 그 아래에는 일용사무를 열거해 썼는데, 그중에 조선사절이 와서 석정(石町) 삼교루(三橋樓)에 머무는데 인원이 59인이라고 쓰여 있었다.”라고 대판일보 보도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신문에도 인원수를 59명으로 적고 있다.

22) 조항래, “경진(1880) 수신사행과 대외인식론,” 『강좌 한일관계사』, 조항래 외편, (현음사, 1994), 414.

23) 조항래, 414; 하우봉, 144; 이현주, 292.

<표 1>처럼, 제1차 수신사는 정사만 있고 부사와 종사관은 없다. 삼사 체제가 기본인 통신사행의 구성원과는 차이를 보인다. 제1~4차 수신사행의 삼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제1~4차 수신사행의 삼사 비교

수신사행	수신정사	부사	종사관
제1차 수신사(1876)	김기수(金綺秀)	×	×
제2차 수신사(1880)	김홍집(金弘集)	×	×
제3차 수신사(1881)	조병호(趙秉鎬)	×	이조연(李祖淵)
제4차 수신사(1882)	박영효(朴泳孝)	김만식(金晩植)	서광범(徐光範)

삼사의 구성은 제1, 2차 수신사는 정사만 있고 부사와 종사관은 없다. 3차는 부사가 없다. 4차례의 수신사 가운데 제4차만 삼사 체제를 갖추었다. 이것은 제1, 2차 사행은 예조의 서계, 제3, 4차 사행은 국서를 지참한 것과는 관련이 있다.<sup>24)</sup>

개항 이후 파견된 사절단이 가지는 과도기적 성격 때문에 체제가 정비되지 않아, 원역(員役)의 구성도 계속 변하였다. 원역이 대폭 줄고, 의례적 성격이 감소하는 등 여러 면에서 통신사행과는 다르다. 수신사행은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실무형 사절단으로 간소화 하였다. 제1차 수신사는 총인원이 76명이었다. 제2차 수신사는 의례를 담당하는 인원이 거의 없어진만큼 숫자가 더 줄었다. 특히 수행원 가운데 군관 윤웅렬, 서기 이조연과 강위, 반당 지식영 등 후일 개화파로서 큰 활약을 하는 인물들이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sup>25)</sup>

<표 1>을 보면, 『동도일사』의 저자 박상식은 오인섭과 함께 향서기로 사행에 참여하였다. 제1차 수신사행의 정사 김기수의 『일동기유』와 반당 안광묵(安光默)의 『창사기행(滄槎紀行)』에 의하면, 제1차 수신사행의 향서기는 변택호(邊宅浩)와 강익수(姜益洙)였다.<sup>26)</sup>

24) 하우봉, 145-146.

25) 하우봉, 143-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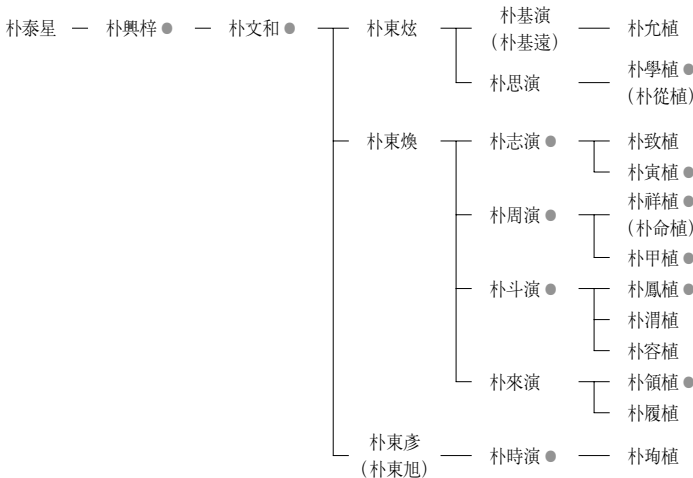
26) 한철호, 158-160.

그런데 『일동기유』에서는 이들을 ‘萊府所從 鄉書記’라고 표현하였다. 즉 동래부에서 온 향서기관 뜻이다. 제3, 4차 향서기에 선발된 인물은 알 수 없다. 변택호는 동래부의 作隊廳 別將과 府廳의 府廳先生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sup>27)</sup> 오인섭과 강익수의 경력은 알 수 없다. 박상식도 변택호와 마찬가지로 부청선생을 역임하였다. 변택호와 박상식이 부청선생을 역임한 것과 향서기로 선발된 시기의 선후 관계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동래부의 상급 향리인 부청선생의 경력과 향서기로 선발된 것은 관계가 깊다고 생각한다.

### 3. 『동도일사』의 저자 박상식과 그의 직계

『동도일사』 저자 박상식의 직계 가계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시는 동래부의 『부청선생안』에 수록된 인물이다.

<박상식의 가계도>



27) 손숙경, 이훈상, 『조선 후기 동래의 무청선생안과 무임 총람』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09), 163.

박상식의 본관은 밀양이다. 그의 집안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서 세거하다가, 동래의 읍내 당동(堂洞)에 들어와 살았다. 입향조는 박태성이다. 박태성이 칠곡에서 동래로 이거한 구체적인 내력은 알 수 없다. 다만 『가승』에는 상배(喪配)한 후, 연로한 과매(寡妹)와 어린 아들 흥재와 함께 동래로 왔다고 적혀 있다. 이 집안은 박태성의 아들 박흥재부터 고손자대까지 모두 24명 가운데 12명이 부청선생을 역임할 정도로 동래지역의 대표적인 이족(吏族) 집안으로 자리잡았다.

박태성- 박흥재- 박문화- 박동환- 박주현- 박상식으로 이어지는 박상식 직계의 동래부 경력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박상식 직계의 동래부 무임/이임 경력

무칭	직임	朴泰星	朴興梓	朴文和	朴東煥	朴周演	朴祥植
		5대조부	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	본인
장관청	중군						
	친총					●	
	파총						
	초관			●	●		
별군관청	행수					●	
	병방						
	군기감관						
	별군관						
	대술군관						
교련청	기지구기						
	수초관						
	교련관	●					
별기위청	별장						
	백총						
	정						
	영						
	영하						
작대청	별장						
	백총				●		

무칭	직임	朴泰星	朴興梓	朴文和	朴東煥	朴周演	朴祥植
		5대조부	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	본인
수첩청	별장						
	백총	●					
집사청	집사						
운도당	행수딤사						
	기지구관						
	기패관						
부칭	부칭선생		●	●		●	●

1731년(영조 7) 동래읍성을 수축할 때, 동서남북의 4소로 나누고, 각 소마다 소장(所將)과 도패장(都牌將)의 아래에 제1~15 패장을 두었다. 박태성은 남소 제2패장을 맡았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박상식의 직계는 6대에 걸쳐, 동래부의 무임직이나 이임직(부칭선생)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은 모두 역임하였다. 특히 6대 가운데 4대가 상급 향리인 부칭선생을 역임하였다.

박상식은 1845년(헌종 11) 동래부 읍내면 동부 안민리에서 태어나, 1882년(고종 19)에 별세하였다. 아버지는 장관청 천총, 별군관청 행수, 부칭선생을 역임한 박주연(朴周演)이다. 어머니는 중군, 장관청 천총, 작대청 별장, 별군관청 행수, 병방, 수첩청 별장, 부칭선생 등을 역임한 이학언(李學彦)의 딸인 안산 이씨이다.<sup>28)</sup>

아버지 박주연은 죽림(竹林)거사, 병산(屏山)거사라고 자칭하였다. 박주연은 『윤대집(倫臺集)』이라는 문집을 남겼다. 『윤대집』에 수록된 윤대산수가(山水歌)나 윤대지리부(地理賦)는 동래 지역의 명소인 오륜대(五倫臺)와 그 주변 경관을 묘사한 대표적 작품이다. 특히 윤대산수는 주자(朱子)의 무이구곡가(武夷九曲歌)를 본떠서 지은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구곡가 작품으로, 그의 문학세계를 잘 보여준다.<sup>29)</sup> 그는 ‘농가월령(農家月令)12곡병풍’을 주문 제작하였다. 송암(松菴)이란 호를 가진 사람이 그린 이 12곡 경직도(耕織圖)에 직접 시를 지었다.<sup>30)</sup>

28) 이상은 김동철(2003), 228-243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29) 엄경흡, 147-165.

30) 이현주, “동래지역 <농가월령 12곡병> 2점을 통한 조선말기 경직도의 일 경향 연구,” 『문물연구』 16호(2009), 동아시아문물연구학회단, 127-129.

시는 「시경」 빈풍(飶風) ‘칠월’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 많다. 오류대 주변 농촌 풍경과 농민들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다.<sup>31)</sup>

박상식은 본인, 동생, 아버지, 외조부가 모두 부청선생을 역임하였다. 아버지는 문집을 남길 정도의 동래 지역을 대표하는 식자층이었다. 박상식이 「동도일사」에 10편이 넘는 자작시를 수록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한학 소양을 갖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버지를 비롯한 가학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부청선생, 무청선생을 역임한 그의 직계 가계의 경력과 가학으로 이어지는 한학의 소양은 박상식이 향서기로 선발된 중요한 이유의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매일 글 쓰는데 신경을 쓰면서 나그네의 감회가 아울러 생기는데(「동도일사」, 7월 15일)라거나, “하루 종일 글씨를 쓰다가 마음이 산란하여 절구 하나를 지었다(7월 20일)”라고 한 것처럼, 수신사 사행에서 기록을 담당하는 향서기의 역할은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향서기 직책을 맡은 박상식은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견문일기나 공문서를 포함한 「동도일사」를 남겼다.

## 4. 「동도일사」의 문헌학적 검토

### 4.1 제2차 수신사행의 일정과 노정

1880년 2월 9일 의정부의 주장에 따라 수신사 파견을 결정하였다. 3월 23일 김홍집을 수신사로 임명하였다. 4월에는 호조에서는 수신사 일행에게 지급할 쌀, 옷가지, 여비 등에 관한 별단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월에는 승문원(承文院)에서 수신사를 보내는 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국에 보낼 자문(咨文)을 짓도록 하였다. 5월 28일 수신사를 입사하도록 하였다. 이런 절차를 거친 후, 제2차 수신사 정사 김홍집은 5월 28일 고종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서울을 출발하였다.

「동도일사」에는 김홍집이 동래 도착, 부산 출발, 귀국 부산 도착 때 각각 올린

31) 엄경흠, 165-178.

6월 15일, 6월 25일, 8월 12일자 3차례의 「계초(啓草)」와 「별단초(別單草)」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와 「동도일사」 일기 내용을 근거로 노정과 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제2차 수신사행의 주요 일정과 노정 개관

날짜	노정 및 주요 행사
6. 15	동래부 도착
6. 22	부산진 도착
6. 24	영가대에서 해신제 거행
6. 25	협동상사(協同商社) 선박 천세환(千歲丸) 승선
6. 26	부산진 출발. 적간관(赤間關/赤馬關, 아카마세키) 도착
6. 27	아카마세키 출발
6. 29	신호(神戶, 고베) 도착
7. 4	화가포환(和哥浦丸, 和歌浦丸) 승선, 고베 출발
7. 6	橫濱(요코하마) 도착. 기차로 요코하마 출발 동경(東京, 도쿄) 도착
7. 8	외무성 방문
7. 25	황거(皇居) 방문. 천황 만남
8. 4	도쿄 출발. 기차로 요코하마 도착. 고사환(高砂丸) 승선, 요코하마 출발
8. 6	고베 도착
8. 8	천세환(千歲丸) 승선, 고베 출발
8. 10	아카마세키 도착. 아카마세키 출발. 일본 떠남
8. 11	부산진 도착
8. 12	동래부 도착
8. 15	김홍집과 박상식 작별
8. 28	김홍집 복명(귀국 보고)

부산을 출발한 수신사의 주요 노정은 부산 → 아카마세키(赤間關/赤馬關, 시모노세키) → 고베(神戶) → 요코하마(橫濱) → 도쿄(東京)이다. 귀로는 역순이다. 부산과 요코하마 사이는 선박을, 요코하마와 도쿄 사이는 기차를 이용하였다.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노정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조선 선박 대신에 일본 기선을 이용하였으며, 대마도를 경유하지 않았다.<sup>32)</sup> 통신사행은 오사카-에도(도쿄) 사

32) 하우봉, 146-147.

이를 육로로 갔지만, 수신사행은 고베-요코하마 사이를 해로로 갔다.

1868년 명치유신에 의해 성립된 명치정부는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을 단행하였다. 대마번은 폐지되고, 이만리(伊萬里)현에 병합되었다. 1872년에는 초량왜관의 사무를 외무성 소관으로 하고, 옛 대마도의 사절에게는 귀국을 명하였다. 외무성이 왜관을 접수함으로써 대마도의 외교권은 상실되었다. 따라서 조선 사절이 대마도를 경유할 필요가 없었다.

## 4.2 「동도일사」의 구성과 내용

「동도일사」는 일기의 마지막 날짜인 1880년 8월 15일 이후, 박상식이 병사한 1882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동도일사」는 1982년 영인 간행된 바 있다. 영인 간행 당시 이 책을 발굴한 김석희(현 부산대 사학과 명예교수)에 의해 「내용, 관련 수신사자료, 자료의 가치」 측면에서 상세한 해제가 작성되었다. 이 해제에 의하면 1982년 당시는 종손 박인규가 이 책을 소장하고 있었다.<sup>33)</sup> 그 후 후손 박진호가 소장하고 있다가, 최근 부산박물관이 소장하게 되었다.

책의 크기는 24×16cm이다. 책은 중간에 찢어져 없어진 부분이 있다. 현재는 1책 51장, 102면의 필사본이다. 1면을 10행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부대사학」(1982년)에 수록된 영인본은 영인할 당시 글자가 결락(缺落)된 부분이 있어서, 원본과의 대조가 필요하다.

45면의 제10행(마지막 행)과 46면의 제1행(첫 행)에는 글자의 결락이 있다. 김석희의 해제에 의하면, 46면의 제10행 마지막 부분인 ‘其後果已遣使否’와 그 다음 면의 제1행 첫 부분인 ‘一至外務省談判’ 사이와, 52면의 제10행 마지막 부분인 仍卽馳書以†三과 그 다음면의 제1행 첫부분인 若曰無關則 사이에 2장이 찢어졌다고 하나,<sup>34)</sup>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장수가 찢어져 없어졌다.

「동도일사」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박상식 본인의 수신사

33) 김석희, 241.

34) 김석희, 239-240.

행 일기로, 일기체로 적혀 있다. 제2부는 정사 김홍집이 일본 외무성 관료와 주고 받은 문답으로, 대화체로 적혀 있다. 제3부는 수신사 관련 공문(公文)으로, 공문 형식체이다.<sup>35)</sup> 이 3부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각각 다음 표와 같다.

<표 5> 『동도일사』에 기록된 박상식의 활동(제1부)

일기 일자	장소	만난 사람	활동 내용	비고
1	6.28	赤間關 (아카마세키, 下關) 徳郎(船人)/船長	赤間關 유람/ 詩 지음/ 프랑 스산 포도주 마심	
2	6.29	神戸 (고베) 柳本直太郎(兵庫縣 외무과 장)/東原宜謙(大坂 屬官)/片山正中(西京 속관)/青木幹 (병고현 6등숙)/專崎彌五郎	專崎彌五郎(大商) 집 방문, 구경/연회(宴會)	전기미오랑 저택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
3	6.30	神戸	동경에 갈 飛脚船을 기다림/ 시 지음	
4	7.1	神戸 專崎彌五郎	망궐례/대관에 사람을 보냄/ 專崎彌五郎이 함을 보냄/시 지음	돌아가는 배편에 집에 편지 부침
5	7.2	神戸 相馬幸治	相馬幸治에게 시 1수 지어줌 /차운 시 지음	
6	7.3	神戸 憑昭煒(부영사)	大坂日報을 봄/憑昭煒와 筆談/고베 시내 관람	大坂日報에 조선사 절 기사 실림/고베의 경관 묘사
7	7.4		和哥(歌)浦丸 승선/고베 출발	선실 풍경 묘사
8	7.5		阿比留廣作이 배안에서 사망	
9	7.6	橫濱 (요코하마) 遠藤岩雄(외무 1등숙)/本多靜直(神奈川縣 7등숙)/川喜多壯藏(8등숙)/櫻田親義(외무성 權大書記)/芳川顯正(외무 少輔)/花房義質(辨理公使)/山之城祐長/石幡貞	선상에서 祈廟祭/요코하마 도착/品川(시나가와)-新橋(신바시)-東京(도쿄) 도착/외무성의 접대를 받음/본원사 숙박	요코하마/도쿄경관 묘사/本願寺(혼간지) 숙소

35) 김석희, 237-241.

36) 『수신사기록』의 『大清欽使筆談』에는 7월 15일에 김홍집이 淸 參贊官 黃遵憲과 楊樞를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현주, 294의 <표 1>에는 『駐日淸國公使 일행과의 필담일지』라는 제목으로 7월 15일, 16일, 18일, 21일, 8월 2일, 3일의 6차례의 방문자와 필담장소가 정리되어 있다.

1880년 제2차 修信使의 鄉書記 朴祥植의 사행일기 「東渡日史」

일기 일자	장소	만난 사람	활동 내용	비고	
10	7.7	도쿄 혼간지	鈴木慧浮(혼간지 승려)	鈴木慧浮 만남	
11	7.8	도쿄	上野景範(외무성 大輔)/櫻田親義/芳川顯正/花房義質	김홍집이 당상관, 하예와 함께 외무성 방문, 서계 전달하고 간단히 문답/宗重正(前對馬島主)이 숙관을 파견하여 위로함	
12	7.9	도쿄	宮本少一(大書記)/喜多川廣(7등 서기관)/清水常鍊(4등숙)/竹內於菟(8등숙)	宮本少一이 숙소 방문, 회담 초안 가져옴/喜多川廣, 清水常鍊, 竹內於菟 만남	
13	7.10	도쿄	井上馨/花房義質	김홍집과 井上馨 집 방문/花房義質 집 방문/시 지음	井上馨 / 花房義質 집 묘사
14	7.11	도쿄	島田三郎(大書記)/上領頼方(少佐)/井上馨/花房義質	井上馨, 花房義質과 친하 형편과 세계 대세에 대해 답화/博物館(博物館) 관람	博物館(博物館) 풍경 상세하게 묘사
15	7.12	도쿄	堀内辨(숙관)/竹田忠質(1등숙)/和田比義(2등숙)/花房義質	일본인 숙관과 만남/花房義質이 회담 초안 가지고 옴	
16	7.13	도쿄	宗重正(옛 대마도주)	宗重正과 만나 답화	宗重正의 인물 묘사
17	7.14	도쿄	富田冬三(小書記)/黃遵憲(清 參贊官)/楊樞 <sup>36)</sup>	富田冬三, 黃遵憲, 楊樞와 만남, 黃遵憲, 楊樞와 필담	黃遵憲과 楊樞 인물 묘사/필담 내용
18	7.15	도쿄		망궐례/吉原 유곽(遊廓) 구경	吉原 유곽(遊廓) 묘사
19	7.16	도쿄	何如璋(청 공사)/宮本少一	宮本少一 집 방문/대포놀이 구경	宮本少一 집 묘사/대포놀이 묘사
20	7.17	도쿄		공자묘(太學) 방문	태학 묘사
21	7.18	도쿄	何如璋/張斯桂(청 부사)/山田顯義(참의)	何如璋, 張斯桂와 필담	지진 발생
22	7.19	도쿄	太政大臣/黒田清隆(원로원 의장, 陸軍卿, 참의)/森山茂(원로원 대서기)	太政大臣, 黒田清隆, 森山茂이 방문하여 위로함/공장 구경	
23	7.20	도쿄	大藏卿/내무경/左大臣/花房義質/伊藤博文(참의)	大藏卿, 내무경, 左大臣, 花房義質, 伊藤博文이 방문/시 지음	
24	7.21	도쿄	何如璋	김홍집과 청국 공관 방문	청국 공관 묘사
25	7.22	도쿄	문부경/해군경/우대신/赤治常一(4등숙)/宮島一郎(정6위)	문부경, 해군경, 우대신이 방문/赤治常一, 宮島一郎이 방문/김홍집과 구 대마도주 집 방문	
26	7.23	도쿄	궁내경	궁내경이 방문/거리 구경/澁澤榮一(동경제일은행국상인)과 喜一郎(大倉組 상인)이 복숭아 등 과일 보냄	도쿄 거리 묘사

일기 일자	장소	만난 사람	활동 내용	비고	
27	7.24	도쿄	協同社 사원	協同社 사원에게 글 써줌/절구경/시 지음	사찰 묘사
28	7.25	도쿄	일황/黑岡(해군 소좌)/林清康(소장)/堀本禮一助(육군 공병소위)	進賀禮/황거 방문/해군성 방문	황거 묘사/해군성, 군사시설 묘사
29	7.26	도쿄	外務省卿, 花房義實	김홍집과 외무성 방문/외무성경, 花房義實과 收稅, 禁米 문제 논의	收稅, 禁米문제 담화록 초본
30	7.27	도쿄	太政官/各 省官	김홍집, 당상관과 遠遼館 방문, 연회/시 지음	
31	7.28	도쿄		각省去 예물 보냄/淺草寺와 주변 상점 구경	
32	7.29	도쿄	大藏省 省吏	大藏省 방문, 지폐 제작 구경	윤전기로 지폐 만드는 것 묘사
33	7.30	도쿄	육군성 등 각 省官	육군성 방문, 육군교련법 관람	육군 교련법 묘사
34	8.1	도쿄	宗重正	망궐례/宗重正과 차 마시며 답소/시 지음	
35	8.2	도쿄	巖倉(우대신)	巖倉 집 방문/중자에게 시 지어줌/집 부침	巖倉 집 묘사
36	8.3	도쿄	외무성 임원	김홍집과 외무성 방문/서계 답장 받음/各省의 예물 받음	
37	8.4	도쿄/요코하마	외무경/花房義實/森山茂	외무경이 와서 작별/속소 떠남/大輪車(기차)로 요코하마 도착/高砂丸 승선	도쿄-요코하마(기차), 요코하마 출발
38	8.5	紀伊州 大島		배 타고 가면서 주변 지역 구경	
39	8.6	고베		고베 도착/前 관소 도착/관소 사람과 서로 위로함	
40	8.7	고베		兵庫縣, 大坂에 사람을 보내 문안/작별	
41	8.8		浦田敬	千歲丸 타고 고베 출발/浦田敬의 시에 화운	
42	8.9			배에서 일본 풍경 관람	
43	8.10	赤間關	協同社 사원	아카마세키 도착/協同社 사원과 작별/시 지음/일본 떠남	화륜선 승선
44	8.11	부산		黑巖 안바다에 정박/부산 도착/동래부에 통문	
45	8.12	동래		동래부 도착	
46	8.15	沙背峴	김홍집 등	김홍집에게 작별 인사	

제1부 일기 부분은 6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기록이다. 8월 13일, 14일을 제외하면, 사행 기간 동안에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기록을 남겼다. 전체 46항목이다. <표 4>에서 정리한 것처럼, 수신사행은 6월 15일 동래, 6월 22일 부산진에 도착하였다. 6월 25일 승선한 후, 6월 26일 부산진 출발, 6월 27일 아카마세키를 출발하였다. 이 적어도 6월 25-27일의 3일간의 일정은 수신사행의 일정이나 노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동도일사』에는 이 출발 부분이 없다. 『동도일사』 원본을 보면, 6월 28일 이전 부분이 찢어져 없어졌다. 그리고 첫 행이 6월 28일 일기부터 시작한다. 이 첫 부분이 없어진 것은 실수로 찢어져 소멸된 것인지, 어떤 의도로 찢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sup>37)</sup>

향서기라는 직책답게 공적인 활동은 물론 개인적인 활동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가 공식적으로 만난 일본인, 청국인, 방문한 장소, 구경한 거리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專崎彌五郎, 井上馨, 花房義質, 宮本少一, 巖倉具視의 저택, 宗重正, 黃遵憲 등 인물, 청국 공관, 공차묘(태학), 박물관, 皇居, 사찰, 길원(吉原) 유곽 등 특정 장소, 고베, 요코하마, 도쿄 등 도시 경관, 대포놀이, 해군성 군사시설, 육군 교련법, 지폐 제작 등 근대문물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다. 향서기 박상식이 본 근대 일본의 실상과 함께 이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필담이나 소회로 지은 10여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제2부의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김홍집과 외무성 관료와의 문답(제2부)

번호	날짜	내용
1	7.6	芳川顯正(外務小輔), 花房義質 등이 관소에 와서 주고 받은 문답
2	7.8	역관 등을 데리고 외무성에 가서, 서계를 전하면서 上野景範(외무대보), 花房義質 등과 주고 받은 문답
3	7.8	上野景範, 花房義質이 관소에 와서 주고 받은 문답

37) 『동도일사』를 학계에 처음 소개한 김석희의 해제에는 첫 부분이 낙장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번호	날짜	내용
4	7.9	宮本少一(外務 大書記)이 관소에 와서 주고 받은 문답
5	7.10	花房義質이 관소에 와서 주고 받은 문답
6	7.26	외무성에 가서 井上馨(외무경) 등과 주고 받은 문답
7	8.3	井上馨의 집에 가서 그와 주고 받은 문답
8	8.4	도쿄를 떠날 때 정상형이 와서 작별하면서 나눈 대화

전체 8항목이다. 모두 대화체로 되어 있다. 대화 내용에서 ‘我(나)’로 지칭된 사람은 박상식이 아니라 수신사 정사 김홍집이다. 김홍집이 외무경 井上馨, 외무대보 上野景範, 외무소보 芳川顯正, 외무대서기 宮本少一, 변리공사 花房義質과 문답한 내용이다. 박상식은 향서기로서 문답 내용을 한문체로 받아 적은 것으로, 속기사와 같은 기능을 했다고 생각한다.

문답 내용은 사행 일정, 노정, 관료 안부, 숙소, 서계 전달, 천황 인견, 장관과의 상견례, 사행의 공무, 서계 내용, 수세 문제, 청국과의 통상, 해관규칙, 세계 형세, 청과 러시아 관계, 신문, 이리(伊犁)사건, 항구규칙, 상세(商稅), 인천 개항, 원산항, 미국 금지, 해관규칙, 의주(義州)세법, 서양 각국과의 수교 등 수신사가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를 비롯한 공적인 내용은 물론 개인의 안부, 명승지 유람 권유 등 사적인 내용까지 망라하고 있다. 대화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안을 둘러싸고 조선의 수신사 정사와 일본 외무성 관료가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제3부의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수신사 관련 공문(제3부)

번호	날짜	공문 내용	비고	관련 자료
1	3.4	의정부에서 동래부에 보낸 공문	전교 내용	『비변사등록』/『고종실록』, 고종17년(1880) 2월 9일
2	4.12	동래부사 심동신(沈東臣)이 부산 일본영사관에 보낸 공문	별간(別柬) 4개 조항 기록	
3	4.18	5월 25일(양력) 부산 일본영사 近藤真鋤가 보낸 공문	별록 6개 조항 기록	
4	4.28	부산 일본영사관에 보낸 공문	출발, 발선(發船)일자 통보	

1880년 제2차 修信使의 鄉書記 朴祥植의 사행일기 「東渡日史」

번호	날짜	공문 내용	비고	관련 자료
5	5.2	예조에서 동래부에 보낸 관문(關文)		『수신사행등록』
6	6.15	계초(階礎)	김홍집이 동래부에 도착한 것을 보고	『수신사행등록』/ 『동문회고』
7	5.	서계초(書契草)	예조판서 윤자승이 일본 외무경 井上馨에게 보낸 서계	『수신사행등록』
8		별록(別錄)	부산항 수세 문제	『수신사행등록』/ 『동문회고』
9		예단(禮單)	예단/사예단/행중(行中)예단	『수신사행등록』
10	5.2	의정부에서 연로 각 영읍에 보낸 관문	접대 폐단 금지	『수신사행등록』
11	5.18	의정부가 경상감영에 보낸 관문	수신사행 경비 마련	『수신사행등록』
12	5.27	무위소(武衛所)에서 보낸 공문		『수신사행등록』
13		영가대 해신제 제문		『수신사행등록』
14	6.25	계초(啓草)	김홍집의 상계/상하 인원 후록	『수신사행등록』
15		예단증급처(禮單贈給處)	병고(兵庫)현령/兵庫 1등숙/외무경/외무대보/외무소보/외무대서기/외무권대서기/번리공사/구대마도주/대장경/공부경/내무경/해군경/육군경 등	
16	9.7	답서계(答書契)	일본 외무경 井上馨이 예조판서 윤자승에게 보낸 답서계	원문의 명치 12년은 13년의 오기임. 『동문회고』/『수신사기록』(국사편찬위원회, 1958)
17	9.7	별지(別紙)	외무경 井上馨이 예조판서 윤자승에게 보낸 별도의 서신	『수신사기록』
18	7.7	서간(書柬) 왕복	수신사 김홍집이 외무경 井上馨에게 보낸 서신	
19		외무대보(大輔) 내서(來書)	외무성 외무대보 上野景範에게서 온 서신	
20	7.23	외무경 내서(來書)	외무경 井上馨에게서 온 서신	
21		문견(聞見)	수신사가 듣고 본 내용	『수신사기록』
22	8.12	계초(啓草)	김홍집이 부산 출발·도착 때까지 여정 간략 보고	『수신사행등록』
23		별단초(別單草)	김홍집이 수신사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보고	『수신사행등록』/ 『동문회고』

전체 23개 항목이다. 대부분 공문 형식을 띠고 있다. 의정부, 예조, 동래부, 무위소, 일본 영사관이 발급한 공문, 김홍집의 계초와 문견(보고서), 서계와 답서

계, 일본 외무성 관료의 서신 등 공적 문서가 중심이다. 그밖에 부산항 수세 관련 별록(別錄), 해신제 제문, 예단증급처와 예단 내용 등 공적 사항을 적은 내용이다. 수신사행과 관련된 공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날짜나 내용별로 일관성을 가지고 정리한 것은 아니다.

항목의 내용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수신사행등록』이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미 간행한 『수신사기록』이나 『동문회고』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제2차 수신사 관련 사료에는 없는 것도 있어서 사료적으로 중요하다.

#### 4.3 『동도일사』의 자료적 가치

지금까지 제2차 수신사 관련 연구는 『수신사행등록』, 『수신사기록』, 『동문회고』, 『왜사일기』(1975년 영인), 『김홍집유고』(1976년 영인) 등을 기본 사료로 활용하고 있다. 『동도일사』에는 이들 기존의 수신사 관련 기록에는 없는 내용이 상당 부분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제2차 수신사 연구를 위한 1급 사료로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동도일사』는 1982년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존재 자체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것은 그가 중앙 관료가 아닌 동래부 향리 출신이라는 점과 그가 귀국 후인 1882년에 사망함으로써 그의 활동상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행일기의 측면에서 김홍집의 『수신사일기』와 비교해 보면, 『동도일사』의 자료적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 비록 출발 당시의 2~3일분이 전하지 않는 한계는 있지만, 사행 전기간 동안의 일정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어, 사행일기로서의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사행 그날그날의 동정, 일본과 청국과의 접촉, 조선과 일본간의 현안 문제를 둘러싼 교섭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제2차 수신사의 파견 목적과 일본에 대한 태도를 잘 알 수 있다. 정사 김홍집 자신의 활동상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관료의 시선이 아닌, 동래부 향리 출신, 즉 지방 중인 출신인 박상식의 눈으로 본 일본의 근대 풍경과 그것을 바로 보는 그의 시선과 인식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후기 12차례 통신사행(3차례의 회답검쇄환사행 포함)과 개항 이후 4차례의 수신사행을 통해, 많은 부산 지역 사람들이 일본을 보고 왔다. 그러나 사행일기를 남긴 사람은 거의 없다. 1763년 통신사행 기록인 『계미수사록』이 작자 미상에서 최근 변탁(卞琢)이 쓴 것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변탁을 포함해서 현재로서는 2명밖에 없다.

일제시기 이전에 부산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 가운데 저작물을 남긴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박주연과 박상식 부자는 각각 『윤대집』과 『동도일사』를 저술하였다. 2대에 걸쳐 저작물을 남긴 유일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들 부자는 부산지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특히 일기에 기록된 10여편의 시는 박상식 자신의 시작 수준이나 일본인식이 잘 드러나 있어, 저자 박상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sup>38)</sup>

## 5. 결 론

개항 이후 4차례의 수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었다. 1880년 제2차 수신사(정사 김홍집)가 파견되었다. 인천 개항, 미국 수출 금지, 관세 징수 등 현안 외교 문제의 해결과 일본의 정세 정탐 등이 파견의 주요 목적이었다.

제2차 수신사에 향서기로 수행한 동래에 거주하던 박상식은 사행일기 『동도일사』를 남겼다. 박상식은 1845년 동래부 읍내면에서 태어나, 1882년 사망하였다.

38) 허경진, 조영심, “수신사를 통해 본 개화기 한시의 위상: 제1·2차 수신사의 창수시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28집(2011), 동북아시아문화학회에서는 제1차, 제2차 수신사 정사인 김기수와 김홍집의 창수시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박상식의 시는 중앙 관료가 아닌 지역[로컬] 지식인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박상식의 시와 이들 중앙 관료의 시와의 비교 검토가 요망된다.

그는 동래부의 상급 향리 명단인 『府廳先生案』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경력이다. 그의 아버지 朴周演도 『부청선생안』에 수록되어 있으며, 장관 청 천충, 별군관청 행수를 역임하였다. 밀양 박씨 집안인 박상식 직계 가계는 동래부 부청선생과 각종 무임직을 역임한 동래지역의 대표적인 吏任·무임집안이다. 박주현은 『윤대집』이란 문집을 남겼고, 박상식도 『동도일사』에 10여수의 시를 남겼다. 박상식 직계의 경력과 가학, 그리고 본인의 경력, 학문적 소양 등이 향서기로 선발된 중요한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통신사와 수신사에서 서울에서 파견된 관료 외에, 부산을 비롯한 지역민이 사행일기는 남긴 것은 1763년 통신사의 『계미수사록』(변탁)과 『동도일사』 두 책뿐이다. 『계미수사록』은 일기체로 쓴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행일기로는 『동도일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동도일사』는 부산지역민이 남긴 유일한 사행일기 형식의 사행록이다.

이 책은 1책으로 된 필사본으로 유일본이다. 박상식의 후손이 소장하고 있다가, 최근 부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이 책은 책의 시작 부분과 중간의 두 곳에 몇 장이 찢어졌다. 책은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일기체로 된 박상식의 수신사행 일기다. 제2부는 대화체로 된 정사 김홍집과 일본 외무성 관료와의 문답이다. 제3부는 公文 형식체로 된 수신사 관련 공문이다.

수신사는 1882년 6월 25일 부산을 출발하여, 8월 11일 부산에 귀환하였다. 일기는 6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내용이다. 6월 27일 이전 부분이 누락된 한계가 있으나, 6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하였다. 그가 공적으로 만난 인물, 방문한 장소, 구경한 거리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청국공관, 공자묘, 박물관, 皇居, 사찰, 吉原遊廓 등 특정 장소, 고베[神戸], 요코하마[橫濱], 도쿄[東京] 등 도시 景觀, 대포놀이, 군사시설, 육군 교련법, 지폐 제조 등 근대문물을 기록하였다. 박상식이 본 근대 일본의 실상과 인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2부 문답 내용은 사행의 공무, 서계 내용, 수세 문제, 청국과의 통상, 해관규칙, 세계 형세, 청과 러시아 관계, 신문, 이리(伊犁)사건, 항구규칙, 상세(商稅), 인천

개항, 미곡 수출 금지, 해관규칙, 의주(義州)세법, 서양과의 수교 등 수신사가 해결해야 할 현안을 비롯한 공적 내용은 물론 개인의 안부, 명승지 유람 권유 등 사적 내용까지 망라하고 있다. 조선의 수신사 정사와 일본 외무성 관료와의 인식 차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我曰'의 我는 박상식이 아니고 김홍집을 지칭하므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박상식은 대화 내용을 기록하는 서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3부는 의정부, 예조, 동래부, 일본 영사관 등이 발급한 공문, 김홍집의 계초와 보고, 서계와 답서계, 일본 외무성 관료의 서신 등 공적 문서가 중심이다. 그밖에 부산항 수세 관련 別錄, 海神祭 제문, 예단증급처와 예단 내용 등 공적 사항이다. 수신사행과 관련된 공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항목 내용은 『수신사행등록』, 『수신사기록』, 『동문회고』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수신사 관련 자료에 없는 것도 있어서 자료적으로 중요하다.

제1차, 2차 수신사 때 부산 출신 朴琪淙(1839~1907)은 하급 통역관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사행일기를 남기지지는 않았으나, 일본 견문을 토대로 부산 최초의 근대적 학교인 開成學校 설립, 민간인 鐵道敷設運動 등 부산 근대사, 한국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박상식은 수신사 경험이 부산·한국 근대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 제2차 수신사에 같이 갔다 온 두 사람의 대비되는 점이다.

통사와 향서기라는 경험과도 관련성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차이는 박상식이 1882년 사망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박상식은 그가 보고온 견문을 부산지역에서 실현시킬만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가 처음 본 근대 일본과 그가 꿈꾼 근대 조선의 실체는 『동도일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밖에 없다. 『동도일사』는 한일관계사의 중심지였던 부산 지역의 지역 지식[Local Knowledge]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텍스트일까, 『동도일사』를 텍스트로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原典

- 고려대 중앙도서관. 『김홍집유고』(영인자료 3).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6.  
국사편찬위원회. 『동문회고』(한국사료총서 24). 1978.  
국사편찬위원회. 『수신사기록』(한국사료총서 9). 1958.  
도원상공기념사업추진위원회. 『개화기의 김충리』. 1977.  
박상식 지음, 이성주 국역. 『동도일사』. 부산박물관, 2012.  
박주연. 『운대집』. 박기덕 편. 복지출판사, 1985.  
한양대학교 국학연구원. 『왜사일기, 동경일기』(영인본). 아세아문화사, 1975.

### 2. 단행본 및 논문

- 구지현. “『癸未隨槎錄』에 대한 재검토.” 『동방학지』 131.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5. 261-288.  
금병동 저, 최혜주 역. 『조선인의 일본관』. 논형, 2008.  
김경태.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창작과비평사, 1994.  
김동철. “조선후기 동래부 이족 밀양 박씨 집안과 그 고문서.” 『고문서연구』 22. 한국고문서학회, 2003. 223-248.  
김동철, “통신사행과 부산지역의 역할.”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 7. 조규익, 정영문 엮음. 학고방, 2008. 139-160.  
김석희, “『동도일사』 해제.” 『부대사학』 6집.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2. 234-269.  
박탄, “일본 수신사의 사행록 연구.”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2009.  
손숙경, 이훈상. 『조선후기 동래의 무청선생안과 무임 총람』.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2009.  
송병기. 『근대한중관계사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1985.  
송병기 편역. 『개방과 예속』.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0.

- 엄경흠. “오륜대와 죽림 박주연의 문학.” 『동양한문학연구』 15집. 동양한문학회, 2001. 145-180.
- 이현주. “제2차 수신사의 활동과 『조선책략』의 도입.” 『한국사학보』 25호. 고려사학회, 2006. 285-325.
- 이현주. “동래지역 <농가월령 12곡병> 2점을 통한 조선말기 경직도의 일 경향 연구.” 『문물연구』 16호. 동아시아문물연구학술재단, 2009. 109-136.
- 조항래. “경진(1880) 수신사행과 대외인식론.” 『강좌 한일관계사』. 조항래 외편. 현음사, 1994. 412-436.
- 조항래. “경진(1880년)수신사와 조선책략의 파문.” 『한일연구』 2집. 한국일본문제연구회, 1973. 5-31.
- 최덕수. “강화도조약과 개항.” 『한국사 37』. 국사편찬위원회, 2000. 217-267.
- 하우봉. “개항기 수신사행에 관한 일연구.” 『한일관계사연구』 10. 한일관계사학회, 1999. 139-167.
- 한철호. “수신사 김기수가 바라본 근대 일본.” 『조선이 본 일본』. 국사편찬위원회 편. 두산동아, 2009. 153-219.
- 허경진, 조영심. “수신사를 통해 본 개화기 한시의 위상: 제1·2차 수신사의 창수시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28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97-116.
- 허동현. “조사 시찰단이 일본에서 맞본 근대.” 『조선이 본 일본』. 국사편찬위원회 편. 두산동아, 2009. 221-295.

